

# 잠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의 반계몽주의적 종교와 신화 이해

: 『새로운 학문』(*Scienza Nuova*)을 중심으로\*

임형권\*\*

- I. 서론
- II. 비코의 반(反)데카르트주의적 신화 이해
- III. 『새로운 학문』의 제일원리로서 종교
- IV. 종교적 경험의 표현과 해석으로서 신화
- V. 사회 제도의 형성 기반으로서 종교와 신화
- VI. 비코와 현대의 종교 연구
- VII. 결론

## I. 서론

잠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 1668-1744)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서적상의 아들로 태어났다.<sup>1)</sup> 그는 수입이 좋은 법학 교수가 되려고 했으나, 끝내 법학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4080968).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잠바티스타 비코, 『비코 자서전-지성사의 숨은 거인』, 조한욱 옮김 (서울: 교유당, 2020), 15-16. 이 책은 그의 개인사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사상가로서 그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 『새로운 학문』이 태어난 지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 책은 중요한 자료이다. 비코의 개인사적, 지적 배경으로 비코

교수직을 얻지 못하고 웅변술을 가르치는 수사학 교수로서 일생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법학을 평생 연구했으며 그 연구의 맥락에서 역사, 철학, 풍습, 종교 등 인간의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독창적인 생각은 이후 철학자, 문학자, 사회이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sup>2)</sup>

기본적으로 비코는 법학자로서 본능적 욕구만을 따르던 야수적 인간이 어떻게 해서 사회와 법, 제도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고립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형성한다는 사회 계약론자들의 생각을 거부하고, 인간은 이성적 본성에 앞서 사회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시적 상태에서 시민적 문명사회로의 이행의 뿌리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전문 종교 연구가는 아니지만 그의 전체 학문 체계 속에서 종교는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종교 연구의 역사에서 그의 생각은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sup>3)</sup> 그는 종교의 본질과 기원뿐만 아니라 종교가 갖는 사회적 효과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종교를 종교인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한 학자였다.

종교에 대한 비코의 관점은 그가 활동했던 당시 학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계몽주의 철학의 종교 이해에 반하는 입장였다. 계몽주의 철학에서 종교는 형이상학적, 신학적 사교의 족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sup>4)</sup> 이 철학 사조에서 종교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상상력이 결합하여 생겨난 허구로 인식되거나, 이성

---

사상한 소개한 다음 글을 보라. 조한욱, 「비코의 세계」, 『과학사상』 25 (1998.5): 231-249.

- 2) 후대 지성사에 미친 비코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이사야 벌린, 『비코와 헤르더』, 이종흡·강성호 옮김 (서울: 민음사, 1997), 194-203; 조한욱, 「비코를 이해하기 위하여」,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43 (2017): 208-214.
- 3) 새뮤얼 프류스(J. Samuel Preus)는 종교 연구의 패러다임을 다루는 연구서에서 ‘종교 연구?’라는 제하의 제3부에서 데이비드 흄(David Hume)과 함께 비코를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 J. Samuel Preus, *Explaining Religion: Criticism and Theory from Bodin to Freud*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6), 59-83. 종교 연구의 역사에서 비코는 종교학 이전의 종교 연구자로 분류된다. 참조. 유요한, 『종교학의 이해-현대사회의 종교학』 (서울: 세창출판사, 2020), 104-118.
- 4) Ernst Cassirer, *La philosophie des lumières*, traduit par Pierre Quillet (Paris: Fayard, 1932), 194.

의 한계 속에서 그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왜소화된 종교의 자리는 비코에 의해서 중심적 지위로 격상되었다.

이 글의 구체적 목적은 비코의 핵심 저서인 『새로운 학문』(Scienza Nuova, 1725)에 나타난 그의 종교와 신화에 대한 반계몽주의적 관점을 밝히려는 데에 있다. 종교와 신화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비코에게 종교와 신화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저술은 계몽주의가 표방하는 근대적 학문 방법론에 대한 그의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제목에서 ‘새로운’은 바로 근대 학문 방법론과 다른 새로운 길을 걸겠다는 저자의 포부를 표현한다. 이 작품은 그의 사상의 원숙성과 체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소재로 삼기에 적절하다.

이 글은 우선 비코의 신화관을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이성주의 철학에 입각한 신화 이해와 대조하여 고찰하고, 비코의 새로운 학문의 기본 원리가 이성이 아닌 종교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비코에게 종교와 신화는 동전의 앞뒤처럼 분리할 수 없음을 기술하고, 종교와 신화가 사회 제도 형성과 유지 위한 기초가 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비코의 반계몽주의적 종교와 신화 이해가 오늘날 종교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정리할 것이다. 비코 사상에서 종교와 신화가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학계의 비코 연구는 비코의 역사철학에 집중되어 있다.<sup>5)</sup> 향후 비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기대하면서 이 연구는 비코의 사상을 종교 연구의 견지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 II. 비코의 반(反)데카르트주의적 신화 이해

5) 비코의 사상에서 종교가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내의 비코 연구는 주로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졌다. 국내 비코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조한욱, 「국내 비코 연구의 동향과 전망」, 『역사와 담론』 46 (2007): 285-300. 국내의 편중된 연구 경향과 달리 서구 학계의 비코 연구는 역사학, 철학, 법학, 신학, 종교학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 학계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보라. David L. Marshall, “The Current State of Vico Scholarship,”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2 (2011): 141-160.

근대 철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는 중세 말 스콜라 신학과 철학에 도전하여 수학적 지식을 진리의 척도로 삼는 학문적 기획을 시도했다. 그는 서양 중세에 지식과 존재의 근원이자 중심이었던 신의 자리에 ‘사유하는 자아’(cogito)라는 새로운 중심을 설정함으로써 서양 지성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데카르트는 철저한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수학적 지식과 같이 가장 ‘명석(明皙)하고 판명(判明)(clare et distincte)한 지식을 보편타당한 학문적 지식이라고 여겼다.<sup>6)</sup> 따라서 그는 이성으로 검증할 수 없는 계시 종교의 교리나 역사학과 같이 모호한 기억에 의존하는 지식에 대해서 불신하였다. 데카르트가 역사, 전통, 권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수학적 지식만을 학문적 지식으로 여긴 것에 반대한 이들이 있었는데, 비코도 그 사람들 중 하나이다.<sup>7)</sup> 『자서전』에서 비코는 16세기 나폴리의 지적 풍토가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기울고 있음을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의 철학의 특성을 지적한다. “『방법서설』에서 데카르트는 언어와 웅변과 역사와 시에 대한 연구를 부정했으며 자신의 형이상학과 물리학과 수학만을 확립시킴으로써 문학을 아랍인들의 지혜 정도로 격하시켰다.”<sup>8)</sup>

하지만 비코는 데카르트의 근대적 학문 기획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수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 모델의 적합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수학적 모델의 보편적 설명력을 문제 삼았다. 데카르트의 모델은 자연의 영역에 적용할 때 큰 설명력을 가질 수 있지만, 역사와 사회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 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코는 생각한다. 인간의 지

6)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정신지도 규칙·방법서설』,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9), 180.

7) 이사야 벌린은 비코(Vico), 하만(Hamann), 헤르더(Herder)를 데카르트의 방법론에 반대한 반계몽주의(counter-Enlightenment)의 대표 주자들로 소개하고 있다. 비코와 하만의 반계몽주의에 대한 소개로는 다음 글을 보라. 장세룡, 「아이제이어 벌린과 반-계몽주의」, 『역사학연구』 23 (2004): 185-219 참조. Isaiah Berlin, *Three Critics of the Enlightenment: Vico, Hamann, He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The Counter-Enlightenment,” in *The Proper Study of Mankind: An Anthology of Essays*, ed. Henry Hardy and Roger Hausheer (London: Pimlico, 1998), 243-268.

8) 비코, 『자서전』, 79.

성 속에서 자명한(self-evident)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와 달리 비코는 ‘진리는 만들어진 것이다’(verum esse ipsum factum)라는 원리를 제시했다.<sup>9)</sup> 어떤 대상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존재는 그 대상을 만든 자이다. 따라서 자연 세계를 만든 존재인 신이 자연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를 과편적, 제한적 그리고 특정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코의 입장에서 자연과 달리 역사는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인간이다. 비코가 새로운 학문의 대상 영역을 역사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탈리아인 태고의 지혜』(De antiquissima italarum sapientia, 1710)에서 비코는 인간의 지성과 신의 지성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신의 지성을 입체상에, 인간의 지성을 그 입체상에 대한 평면 도안에 비유한다. “신은 사물의 전 요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것을, 인간은 외적 요소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것을 그려내게 된다.”<sup>10)</sup> 그는 인간의 지식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지식으로 여겨지는 수학적 진리조차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코가 보기에 수학자가 제시하는 진리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조작을 통해 그가 만들어 낸 진리이다. 비코는 수학적 지식은 우연히 발견한 화학 지식 정도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은 인간 지성의 결합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간은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자신 속에 함유하지 못한 까닭에 구하고자 하는 진리를 제작하지 못하는, 더 이상 건디기 어려운 한계성이 낳은 것이 인간의 지식이며, 이러한 결합을 매우기 위해 제작해 낸 신의 지식과 비슷한 지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지식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실과 만들어진

9) 이종흡은 비코가 존재(Scin)로서의 진리관을 행위(Tun)로서의 진리관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한다. 이종흡, 「비코의 *Scienza nuova*에 있어서 역사 지식의 실천적 의미」, 『사총』 30 (1986): 437. 저자는 주석에서 이 생각이 18세기의 주요 지적 과제였다는 카시러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0) 잠바티스타 비코, 『이탈리아인 태고의 지혜』, 이원두 옮김 (서울: 동문선, 1996), 26.

것은 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sup>11)</sup>

데카르트가 확실하고,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여긴 수학적 지식마저 인간의 ‘제작 활동’(poesis)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비코는 데카르트가 대표하는 근대 이성주의 철학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입장 때문에 비코는 데카르트적 관점에서의 종교와 신화에 대한 이해와 다른 길을 걷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신은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들의 신이다. 말하자면, 그의 신은 수학적 진리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존재를 말한다. 따라서 이 신은 오류가 뒤섞여 있는 감각적 역사 세계와 유리되어 있다. 데카르트가 인간의 기억이나 상상력과 연관되는 신화나 역사를 수학적 지식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점은 그의 합리주의적 신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12)</sup> 데카르트는 자연을 수학적 법칙에 의해서 운동하는 하나의 기계로 여겼다. 따라서 자연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력이나 기억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또한 감각적 경험에 기초한 기억, 상상력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기반한 역사나 신화를 중시할 수 없었다. 데카르트에게 신화는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신화 연구자들도 이런 입장에서 신화를 연구했다. 대표적으로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철학자 베르나르 폰트넬(Bernard Le Bovier de Fontenelle, 1657-1757)은 「이야기의 기원에 관하여」(De l'Origine des Fables)에서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무지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했다. 계몽주의자답게 그는 신화를 이성이 발달하기 전에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11) 비코, 『이탈리아인 태고의 지혜』, 32.

12) 제임스 모리슨(James C. Morrison)은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주의자로 분류되는 스피노자(Spinoza)와 비코를 비교 연구했다. 참조: James C. Morrison, "Vico and Spinoza," *Journal of History of Ideas* 41(1) (1980): 63. 비코와 스피노자를 비교한 새뮤얼 프루스의 다음 논문도 참조하라. J. Samuel Preus, "Vico and the Imagination of Relig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 50 (1989): 71-93.

가련한 야만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더 조잡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의해서만 자연의 효과들을 설명하곤 했다(...)이러한 조잡한 철학은 인류 초기를 지배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신과 여신들이 탄생했다. 인간의 상상력이 거저된 신들을 어떻게 낳았는지 알아보는 것은 꽤 흥미롭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가령, 번개를 치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파도를 요동치게 하고,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능력 바깥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욱 강력한 존재를 상상했다. 그들은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당연히 이런 존재들은 인간처럼 만들어졌다. 그들은 그것 말고 다른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인간의 모양을 갖게 되었다. 상상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인간의 특성이 부여되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인간이었지만, 인간보다는 다소 강하다는 점이 차이였다.<sup>13)</sup>

폰트넬과 달리 비코는 신화를 이성이 개화하기 전 원시인의 무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폰트넬이 신화를 미개한 원시인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여긴 것은 데카르트처럼 상상력이 가변적이고 모호한 감각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코는 기억과 상상력을 새로운 학문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비코는 다음과 같이 기억력을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

기억력에는 세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 사물을 회상하는 기억력과, 그것을 변경하거나 모방하는 상상력과, 그것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하여 적절하게 배치하거나 적절한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창의력이 그 셋이다. 이런 이유로 신학적 시인들은 기억의 여신을 뮤즈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이다.<sup>14)</sup>

비코에게 기억력, 상상력, 창의력은 입체의 세 면처럼 연결되어 있고, 거의

13) Bernard Fontenelle, *De l'Origine des Fables*, in *Oeuvres de Fontenelle*, T.4 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sur sa vie et ses ouvrages. 1825., 297. BnF. Gallica,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454793h/f293>[최종검색 2022/6/4]

14) 잠바티스타 비코, 『새로운 학문』, 조한욱 옮김 (과주: 아카넷, 2020), 674[§819]. 브래킷 안의 번호는 비코의 책 원문 번호임. 데카르트, 홉스, 비코의 기억력 개념을 비교한 조한욱의 논문을 보라. 조한욱, 『비코의 기억력에 관한 연구』, 『청람사학』 21 (2013): 295-308.

동일시된다. 비코는 이러한 정신의 능력들이 이성보다 열등한 능력이기는커녕 오히려 역사적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은유로 가득한 시적 언어는 초기 인류가 자신의 역사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신화는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인의 역사와 관습을 알려주는 보고이다.<sup>15)</sup>

신과 영웅에 대한 마음속의 상이 우화, 즉 참된 신화가 된다. 그러한 신화에 나타난 알레고리는 민중 시대 그리스에 대해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따라서 그것은 철학적 인식이 아닌 역사적인 인식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왕성한 상상력을 통해서 형성된다.]<sup>16)</sup>

따라서 비코에게 상상력은 이성에 비해서 열등한 영혼의 기능이기는커녕, 오히려 역사 연구에서 이성보다 우월한 기능이다. 비코는 다음과 같이 데카르트의 철학과 같은 ‘합리적 형이상학’과 자신이 추구하는 ‘상상력의 형이상학’을 비교한다.

합리적 형이상학은 ‘인간은 이해함으로써 모든 것이 된다’(homo intelligendo fit omnia)라고 가르치지만, 이 상상력의 형이상학은 ‘인간은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된다.’(homo non intelligendo fit omnia)라는 것을 증명한다.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명제가 더 참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해할 때 자신의 정신을 확장시켜 사물을 포착하지만, 이해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몸]으로 그 사물을 만들어 그 사물로 변형되기 때문이다.<sup>17)</sup>

비코는 세계를 이성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 철학을 배격한다.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대인

15) 비코의 신화론의 견지에서 그의 로마사 서술을 연구한 다음 논문을 보라. 임동현, 「‘유럽의식의 위기’와 비코의 로마사 서술」, 『서양사론』 136 (2018): 35-59.

16) 비코, 『새로운 학문』, 59[§34]. 번역 수정.

17) 비코, 『새로운 학문』, 292[§405].



들은 감각적인 사물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려 했다. 비코에게 신화는 고대인들이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비코는 ‘상상적 이해’(fantasia)를 통하여 고대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18)</sup> 이상과 같이 비코는 데카르트의 수학적 학문의 이상에 기초한 이성주의를 반박하고 있다. 그래서 세실리아 밀러(Cecilia Miller)가 지적하는 대로 “유럽 사상사에서 비코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그의 강력한 반데카르트주의, 반프랑스주의 그리고 반계몽주의적 견해들에 있다.”<sup>19)</sup> 다음 장에서는 비코의 반계몽주의의 신화 이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학문』에 나타난 반계몽주의적 종교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 Ⅲ. 『새로운 학문』의 제일원리로서 종교

위에서 언급한 대로 비코의 『새로운 학문』은 자연의 세계가 아닌 정신이 펼쳐지는 역사의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역사가 신적인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sup>20)</sup> 그에게 형이상학은 구체적인 역사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민족의 문명 세계 자체가 형이상학이 다루는

18) 비코의 상상력 개념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글을 보라. Donald Phillip Verene, *Vico's Science of Imagination* (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19) Cecilia Miller, *Giambattista Vico: Imagination and Historical Knowledg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1.

20) 이종흡은 비코가 말하는 섭리는 초월적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공통감각(*sensus communis*)에 내재된 섭리, 다시 말해서 직접적이 아닌 우회적으로 일어나는 섭리라고 해석한다. 참조. 이종흡 「비코와 성찰적 지혜로서의 역사학」, 『서양사연구』, 48 (2013): 91. 이종흡은 자신의 해석을 비코가 이신론(理神論)자라고 전제하고 제시한다. 하지만 비코의 섭리 개념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나폴리 카톨릭 사회의 압력일 수도 있지만, 그의 섭리 개념은 정통 가톨릭 신앙의 섭리관을 지지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을 정통 가톨릭의 입장에서 접근한 다음 연구서를 보라. John Milbank, *The Religious Dimension of the Thought of Giambattista Vico*, I, II (Lewston, NY: Edwin Mellen, 1991-92).

세계이다. 자끄 샤보(Jacques Chabot)가 잘 표현하듯 “비코에게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은 대상 뒤편에 있는 세계도, 관념들이 존재하는 하늘 저편의 세계도 아니다.”<sup>21)</sup> 비코는 자신의 새로운 학문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신을 보아왔을 뿐이다. 반면 이 저작에 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형이상학이 신 안에서 인간 정신의 세계를 바라본다. 그 세계는 형이상학적인 세계로서 인간 영혼의 세계에서 섭리를 증명하려 하며,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는 문명의 세계이자 여러 민족의 세계이기 때문이다.<sup>22)</sup>

비코는 “『새로운 학문』은 모든 민족이 시간 속에서 출현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쇠퇴하다가 종말을 맞으며 밟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상적인 영원한 역사를 제시한다.”<sup>23)</sup>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는 추상적인 이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섭리를 통해서 역사가 어떤 패턴을 밟아가는가를 탐색한다. 비코의 사상에서는 데카르트가 생각하듯이 기억, 역사와 분리된 관념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역사 속에서 관념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비코는 “『새로운 학문』은 인간 관념의 역사인데, 인간 정신의 형이상학은 그 바탕 위에 펼쳐져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sup>24)</sup>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초의 인간들은 어린아이처럼 아직 추상적 개념을 형성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상적 관념들이 아니라 시적 은유와 상징으로 자신들의 시적인 지혜를 표현했다는 생각이다.

민족들 최초의 지혜였던 시적 지혜는 오늘날 학자들의 이성으로 추론해 내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들이 그 당시에 느끼고 상상했던 형이상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최초의 인간들은 공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185] ‘추론의 능력이 약한 것에 비례하여 상상력은 강건해진다.’-필자) 추론의 능력은 전혀 없고 강건

21) Jacques Chabot, *Giambattista Vico: la raison du mythe* (Aux-en-Provence: Sarl Édisud 2005), 49.

22) 비코, 『새로운 학문』, 15[§2].

23) 비코, 『새로운 학문』, 240[§349].

24) 비코, 『새로운 학문』, 238[§347].

한 감각과 왕성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감각과 상상력을 태생적으로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5)</sup>

비코의 새로운 학문은 최초의 시적 지혜를 통해서 최초 인류의 역사에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비코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설정하고 그것 아래서 대상을 설명해 내는 방법이 아니라, 연구 대상 자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한다. “학문의 여왕인 형이상학은 ‘학문은 그것이 다루는 소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공리를 따라 철학자들이 인간의 관념에 대해 사색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한다.”<sup>26)</sup>

비코가 ‘학문은 그것이 다루는 소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공리를 제시한 것은 그가 ‘학자들의 자만심’이라고 부른 편견과 관련된다. 비코는 간단히 학자들의 자만심이란 “학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세계만큼이나 오래되었기를 바란다.”<sup>27)</sup>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 자만심은 다름 아닌 비코가 속해 있는 시대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비판하는 말이다. 계몽주의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오래된 역사 속의 대상을 연구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가령, 고대 신화를 읽을 때 합리주의적 시각으로 읽는다면 당연히 신화를 허구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로 읽게 된다.

하지만 계몽주의자들의 학문 방법론과 달리 비코의 방법론은 그가 역사라고 여긴 신화 속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가령, 비코에게 최고의 신화 시인인 호메로스의 작품은 당시의 풍속을 알려주는 보고이다. 고대의 신화를 역사 문서로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문헌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문헌학이란 단지 문헌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근대적 의미로서의 문헌학이 가진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에 따르면 “문헌학자에는

25) 비코, 『새로운 학문』, 263[§375].

26) 비코, 『새로운 학문』, 238-39[§347].

27) 비코, 『새로운 학문』, 127[§150].

문법학자, 역사가, 비평가들이 있다. 그들은 민중의 언어와 행적에 대한 인식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다. 그 예란 국내로는 관습과 법이 있으며, 국외로는 전쟁, 평화, 동맹, 여행, 교역 같은 것들이 있다.”<sup>28)</sup> 다시 말해, 비코에게 문헌학이란 인간의 모든 문화적 활동의 산물을 의미한다. 그가 문헌학적 연구를 강조한 것은 이성의 원리를 독단적으로 연구 대상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연구 소재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인류의 태고의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서 비코는 당대의 이성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의 관념을 과거로 투사하는 시대착오적, 독단적 분석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연구 대상 자체에서 출발한다. 그가 고대 문헌 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은 ‘종교’, ‘혼례’, ‘매장’이었고, 이것들은 새로운 학문의 3대 원리이면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문명 세계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모든 민족은 종교를 갖고 있고, 엄숙한 혼례를 거행하고, 죽은 사람들을 매장한다.”<sup>29)</sup> 사실, 혼례와 매장도 종교로 환원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혼례와 매장 풍습도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 실행되는 풍습이기 때문이다.

비코는 하늘을 신으로 생각하고 야생에서의 성관계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동굴로 들어가 남녀가 결합하는 것에서 혼례 그리고 가족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혼례의 뿌리에는 종교적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다. 혼례는 종교적 의식으로 거행됨으로써 인간과 짐승을 구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sup>30)</sup> 혼례로부터 가족이 생겨나고, 여기로부터 가부장적인 최초의 국가가 탄생한다. 도널드 베렌(Donald Phillip Verene)은 비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가족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코에게 혼인의 목적은 낭만적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그의 학설이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을지라도) 인간 사회의 기초 구조로서 가족을 확립하고 지속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주석한다.<sup>31)</sup>

28) 비코, 『새로운 학문』, 139[§154].

29) 비코, 『새로운 학문』, 225[§333].

30) 비코, 『새로운 학문』, 228[§336].

31) Donald Phillip Verene, *Vico's New Science- A Philosophical Commentary* (Ithaca: Cornell

비코에 따르면 매장 풍습은 보편적인 관습으로서 영혼불멸에 대한 관념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은 모든 이교 민족들이 동의한 것이 확실한 견해이다. 즉 매장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시체 주위를 맴돌아, 결과적으로 그들은 육체와 함께 죽지도 못하고 불멸로 남아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sup>32)</sup> 그는 ‘후마니타스’(humanitas)의 어원이 매장을 뜻하는 ‘후만도’(humando)임을 확신한다.<sup>33)</sup> 다시 말해, 비코는 매장 행위가 가장 인간다운 문명인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장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 개념과 소유권 개념이 발달하게 되고, 조상과 가문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혼인, 매장, 법과 같은 인간의 문화 전반이 종교에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비코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학문의 제일원리로서 종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종교를 상상의 산물로 간주하는 계몽주의의 급진적 조류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은 “인간 안에는 모든 존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에게 친숙하고, 친밀하게 의식하고 있는 자신들의 특성들을 모든 대상에 전이시키는 성향이 있다.”<sup>34)</sup>고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신적 존재란 인간이 자신의 특성을 사물에 투사하여 생겨난 허구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종교적 상상력을 허구적인 실재를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생각한 흄과 달리 비코는 종교적 상상력을 인간이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는 능동적 능력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종교적 상상력을 통해 인류는 문명화, 인간화될 수 있었다고 비코는 주장한다.

---

University Press, 2015), 94

32) 비코, 『새로운 학문』, 229[§337].

33) 비코, 『새로운 학문』, 29[§12].

34) David Hume, *The Natural History of Religion*, in *The Philosophical Works of David Hume*, vol IV (Edinburgh, 1826), 446.

#### IV. 종교적 경험의 표현과 해석으로서 신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비코에게 종교는 문화 현상의 기초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비판적 이성으로 종교의 지위를 격하시킨 근대 계몽주의의 입장에 대한 도전이다. 종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은 종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신화의 지위 역시 격하시켜 그것을 허구적 이야기로 이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비코가 문화 현상에서 종교의 지위를 복권시키려 한 것은 신화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됨을 뜻한다.

비코에 따르면, 태초의 인간은 천둥과 같은 자연 현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두려움은 막연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pudor)이다. 비코에 따르면, “세계에 신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입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부터 온 두려움이다.”<sup>35)</sup> 여기서 ‘자신으로부터 온 두려움’이란 신적 존재 앞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경건한 감정’(piety)을 말한다. 따라서 이 감정은 단순한 공포와는 다르며 성스러운 존재 앞에서 선 속되고 유한한 인간의 종교적 감정이다.

이 점에서 비코는 흄의 관점과 차이를 보여준다. 흄에 따르면 원시인들의 특징은 행복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미래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을 갖고 있었다. 그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의 긴장 속에서 원시인은 신성의 흔적을 찾게 되었다고 분석한다.<sup>36)</sup> 여기서 흄이 말하는 두려움은 비코가 종교의 뿌리라고 보는 두려움과 성격상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흄의 두려움이

35) 비코 『새로운 학문』, 270-71[§382]. 종교의 기원을 두려움에서 찾은 철학은 고대 유물론 학파인 에피쿠로스학파이고, 흄도 에피쿠로스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베렌(Verene)은 대표적 에피쿠로스주의자인 루크레티우스(Lucretius)와 비코의 입장을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비코가 이해한 두려움은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적극적, 형성적(formative) 정념이다. 그것은 최초 인간들의 신체 활동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들의 감각의 능력을 집중시켜서 인간의 사고와 사회의 필수적 기초를 제공하였다.”(Donald Phillip Verene, *Vico's Science of Imagination*, 90).

36) David Hume, *Dialogue concerning Natural Religion and Other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26-27.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이 세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겪는 불특정한 두려움이라면, 비코의 두려움은 신성에 대한 경건한 감정이기 때문이다.<sup>37)</sup>

신성에 대한 경건한 감정을 느낀 비코의 원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지닌다. 비코에 따르면, 초기 인류는 어린아이처럼 추상적 사고에는 약하지만 비범한 기억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어린아이들의 경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비유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초기 인류는 자연물에 대한 경험을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여 이해했다. 그들은 하늘을 제우스의 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천둥, 번개는 바로 신이 인간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비코가 신학 시인이라고 부른 이들은 지성적으로 훈련된 자들이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언어의 창조자들이다. 최초의 신학 시인들은 감각적인 언어를 통하여 그들이 신에 대해 이해한 것을 대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신성한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최초의 신학 시인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신화보다 더 위대한 최초의 신성한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 최초의 신화는 번개를 던지는 신들의 왕이자 아버지 제우스의 이야기다.] 그는 대단히 인기가 많고, 당혹스럽고, 교훈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만들어 낸 사람들조차 그를 믿었고(…) 경외심의 종교 속에서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받들었다.<sup>38)</sup>

비코에 따르면 ‘신호하다’를 의미하는 ‘누오’(nuo)에서 ‘신의 의지’를 뜻하는 ‘누멘’(numen)이 나왔다.<sup>39)</sup> 신은 자신의 의지를 번개와 같은 신호로 표현한다고 최초의 인간들은 생각한다. 점복(divination)은 제우스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로

37) 종교가 원시인의 두려움에서 나온 허구라고 생각한 흠과 종교가 인간의 야만성을 길들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문명을 창출한다는 비코의 입장을 비교한 다음 논문을 보라. Antonio Corsano, “Vico and Hume face au problème religieux,” *Archives de Philosophie* 40(2) (1977): 241-250.

38) 비코, 『새로운 학문』, 267[§379], 번역 수정.

39) 비코, 『새로운 학문』, 268[§379].

발전되었다. “초기의 민족들 모두가 그러한 언어를 아는 것이 점복이라고 믿었고,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신학’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신의 말을 아는 것’을 뜻했다.”<sup>40)</sup>

여기서 우리는 비코가 신화를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이 지어낸 허구적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신화는 인류 최초의 역사로서 ‘참된 말’(vera narratio)이다.<sup>41)</sup> 로버트 카포니그리(A. Robert Caponigri)도 “비코의 신화 개념의 본질적 특징은 그것의 진실성, 즉 진리를 담아내는 그것의 힘이다.”<sup>42)</sup> 라고 지적한다. 비코에게 신화는 최초의 인간들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 즉 그들의 세계관(Weltanschauung)에 대한 표현이었다.<sup>43)</sup> 신화가 세계에 대한 고대인의 해석이라면 그것을 단순한 허구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해석은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그 행위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고대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 이해(Verstehen)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신화 안에는 이성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44)</sup> 장 삐에르 베낭(Jean-Pierre Vernant)은 이성과 신화의 이분법에 반대하고 신화와 이성 사이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리스어 ‘뮈토스’(*muthos*)는 이야기의 형태든, 대화의 형태든, 계획에 대한 진술의 형태든 간에 형식을 갖춘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뮈토테게인’(*mutholegein*)과 ‘뮈

40) 비코, 『새로운 학문』, 268[§333].

41) 비코, 『새로운 학문』, 287[[§401]. 신화에 대한 이 정의는 비코가 토머스 거테이커를 인용한 것이다. 참조. Thomas Gataker, *De novi Instrumenti stylo*, in *Opera critica*[1668](n° 43).

42) A. Robert Caponigri, *Time and Idea: The Theory of History in Giambattista Vico*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8), 168.

43) Paolo Cristofolini, *Vico et l'hist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5), 72.

44) 이사가 별린에 따르면, “비코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의 개념을 창안한 인물이다(훗날 딜타이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은 이 개념을 *Verstehen*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했다). 비코 이전에서 여러 문헌 언어학자들과 역사가들과 법학자들이 비슷한 개념을 희미하게 암시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낸 주인공은 단연 비코였다.”(이사가 별린, 『비코와 헤르더』, 229).



토로기아'(muthologia)와 같은 복합적 표현에서처럼 뫼토스는 ‘말하기’(legein)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뫼토스는 원래 ‘말’(logoi)과 대조되는 말이 아니다.”<sup>45)</sup>

따라서 비코에게는 신화와 이성, 종교와 이성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종교와 이성 사이에 극한 대립이 생겨난 것은 근대 이성주의 철학이 이성을 공동체, 전통 그리고 권위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데카르트의 이성은 전통과 권위에 대한 맹신을 비판하는 이성이다. 반면, 비코의 이성은 전통과 권위에 의존하여 있다. 비코는 이성보다는 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지는 민간의 전승을 더욱 신뢰한다. “민간전승은 진실의 공공적 근거를 갖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존재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민중 전체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sup>46)</sup> 비코에게는 역사적 상황과 절연되어 있는 데카르트적 의미의 보편적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게 신화는 이성과 대립한다기보다는, 신화가 이성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말하자면, 신화는 이성적 원리를 조야한 형태로 표현한 고대인들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신화 속에서 배어나 모험처럼 숨겨진 지식 전체의 윤곽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신화 속에서 민족들은 거친 방식으로, 그리고 인간 감각을 통하여 이 지식 세계의 원리를 진술했을 뿐이며, 그 뒤 학자들의 논리와 격론을 통해 특별한 속고를 배격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학적 시인은 인간 지혜의 감각이며 철학자는 지성이다.<sup>47)</sup>

45) Jean-Pierre Vernant, *Myth and Society in Ancient Greece* (New York: Zone Books, 1990), 204.

46) 비코 『새로운 학문』, 157[§149]. 조셉 맬리(Joseph Mali)에 따르면, 비코가 집단적인 믿음에 근거한 전통보다는 개별적인 이성을 진리의 매개자로 생각하는 당대의 비판적 학자들에 반대했지만, 그를 전통을 맹신하는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에게 전통은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게 미치는 역사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에게 민간전승은 불합리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다(Joseph Mali, *The Rehabilitation of Myth-Vico's New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225.

47) 비코, 『새로운 학문』, 644[§779].

따라서 비코에게 신화란 최초 인간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틀이다. 신화는 그들의 경험과 역사를 감각적인 언어, 상징,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것들로부터 ‘시적 형이상학’과 ‘시적 지혜’가 도출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에른스트 카시러는 “근대 언어철학의 창시자인 비코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철학, 즉 신화철학의 창시자이기도 했다.”<sup>48)</sup>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신화관은 후대 낭만주의 철학에서 체계화, 명료화된다고 말한다.<sup>49)</sup> 카시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대로 비코는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일찍 인식하였다. 그는 이성 중심의 인간과 세계 이해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후 감정, 이미지, 상징을 중시하는 낭만주의를 선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V. 사회 제도의 형성 기반으로 종교와 신화

비코는 인간의 일차적인 본성을 사회성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학문』 서문에서 그는 “사회적 본성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며, 또한 자연 속에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sup>50)</sup>고 책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힌다. 이 말은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고립된 개인들이 이성에 기초한 합의를 통해서 사회를 구성했다는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와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와 같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을 비코가 따르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들은 근대 제도와 근대적 인간 모델을 원시 사회에 투사한 시대착오적 오류를 범했다. 비코는 세상에 철학자들만 있다면 종교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폴리비오스(Polybios)의 금언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국가는 종교가 없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없다면 철학자들도

48)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2권-신화적 사유』 (서울: 아카넷, 2014), 28.

49)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2권-신화적 사유』, 28.

50) 비코, 『새로운 학문』, 16[§2].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sup>51)</sup> 비코도 계약론자들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이익을 위해서 이성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비코의 원시인은 자율적 개인으로서 이성적 계산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수준에 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비코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이 신성에 대한 경험을 함으로써 비로소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혼인을 통해 가족이 탄생한다. 부끄러움은 인간을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문명을 일구는 계기를 제공했다. 비코에 따르면, “부끄러움은 인간의 첫 제도들의 기초로서, 모든 사회구조는 여기에서 나온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의 공동체의 공유된 이익들에 거스르는 개인적 행동들을 제어할 방도가 없다.”<sup>52)</sup> 이기적인 개인들의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사회적 관계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비코의 논리이다. 야수 상태의 이기적인 인간은 신적 섭리에 따라서 가족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민족, 민족에서 인류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의 영역을 확대해 간다.<sup>53)</sup>

또한, 비코에 따르면 이성적 사고가 발달하기 전에 인간들은 추상적, 보편적 이성이 아니라 공통감각(*sensus communis*)을 통하여 관습과 법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 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존 셀던(John Selden, 1584-1654)과 같이 보편적인 이성에 근거하여 자연법 사상을 정립한 학자들도 비판한다. 공통감각은 비코의 새로운 학문 기획에서 데카르트의 수학적 이성에 대한 대항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비코는 공통감각을 “계급 전체, 민중 전체, 민족 전체, 또는 인류 전체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판단”으로 정의한다.<sup>54)</sup> 한스 게오르

51) 비코, 『새로운 학문』, 170[§179].

52) Christopher Drew Armstrong, “Myth and the New Science: Vico, Tiepolo, and the Language of the ‘Optimates,’” *The Art of Bulletin* 87(4), 2005, 649.

53) 비코, 『새로운 학문』, 233-34[§341].

54) 비코, 『새로운 학문』, 155[§142].

그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비코의 공통감각 개념은 형식적, 지적 능력이 아니라 판단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들을 포함한다고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통감각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을 내리는 것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편적인 관점들 아래서 특수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건전한 견해로부터 사물들을 바라본다.<sup>55)</sup>

다시 말해서, 비코적 의미에서 공통감각은 반성적 사고를 하기 전에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미 형성된 언어, 관습, 종교를 매개로 한 판단을 말한다. 비코에 따르면, 공통감각에 기반하여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종교, 결혼, 매장장 같은 제도들이 출현한다.<sup>56)</sup>

말하자면, 공통감각은 이론적 관심과 관련되기보다는 실천적 관심과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 관심 이전에 현실적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통해 각 민족의 자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법이 이성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생각에 비코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는 각 민족의 법은 각 민족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민족의 법을 액면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씨족들의 자연법은 민족들의 관습과 함께 출현했고, 그것은 아무런 이성적 사고도 필요 없는 인간의 상식[공통감각]에 일치하며, 따라서 민족들 사이에 모방도 없다.”<sup>57)</sup> 그러므로 비코는 자연법은 보편적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에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55)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trans. Joel Weinsheimer and Donald G. Marshall (London: Bloomsbury, 2013), 30. 가다머와 비코의 공통감각 개념을 비교한 다음 글을 보라. John D. Schaeffer, *Sensus Communis: Vico, Rhetoric, and the Limits of Relativ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0), 100-126.

56) 비코, 『새로운 학문』, 225[§333].

57) 비코, 『새로운 학문』, 215[§3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은 공통 감각을 통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특수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비코는 민족의 자연법이 역사의 순환 과정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사가 신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의 시대 순서로 발전, 순환한다고 생각한다.<sup>58)</sup> 그에 따르면, 각 시대는 인간 본성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며, 그 관습에 따라 다른 자연법이 출현한다. 그리고 그 자연법을 기초로 하여 다른 사회적 주권 형태 [국가]가 형성된다. 그럼에도 비코는 각 시대별로 언어, 법, 이성, 권위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섭리적인 신에 대한 신앙에 귀속시킨다. “[이것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통일성 속에 포괄되는데, 그것은 섭리적인 신에 대한 신앙이라는 통일성인 것으로서, 이 민족의 세계에 형태와 삶을 부여하는 정신의 통일성인 것이다.”<sup>59)</sup>

비코는 신적 섭리 아래서 인류가 정신적 통일을 이루는 가운데 다양하게 신화와 종교가 각 민족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비코는 모든 민족들의 기원을 신화에서 찾고, 신화를 최초 민족의 역사로 읽는다. “모든 초기 민족의 역사는 신화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sup>60)</sup> 그 이유는 최초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신화라는 감각적인 언어의 형태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비코에게 신화와 종교는 동전의 앞뒤와 같기 때문에, 신화와 종교가 동시에 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가족이 모든 사회의 최초의 단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종교이다. 비코에 따르면, 구약 성서의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의 종교를 버렸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교접’을 함으로써 결혼을 파기하고 가족들은 분산되었고, 그들은 여러 대륙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sup>61)</sup> 그래서 비코는 “종교만이 가족 국가에서 결혼 유대를 통해 인간 사회를, 그리고 그 결과로 가족 자체를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sup>62)</sup>라고 말한다.

58) 비코의 순환론적 역사관을 그의 언어관과의 관계에서 연구한 다음 논문을 보라. 문경환, 「잠바티스타 비코의 언어관과 역사관」, 『인문언어』 6(6) (2004): 51-75.

59) 비코, 『새로운 학문』, 718[§915].

60) 비코, 『새로운 학문』, 675[§820].

61) 비코, 『새로운 학문』, 254-55[§369].

62) 비코, 『새로운 학문』, 255[§369].

종교는 신화적 언어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는데, 비코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제우스, 헤라클레스, 헤라 등의 신들을 ‘시적 인격체’(poetic character) 또는 ‘상상적 보편자’(imaginative universal)라고 부른다. 시적 인격체란 추상적인 개념을 상징적으로 인격화한 것을 의미한다. 비코는 이러한 시적 인격체들이 명칭은 달라도 모든 문명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민족들 최초의 창건자는 처음으로 대지를 경작할 수 있게 한 헤라클레스들이었다고 생각하고, 고대 학자 바로(Varro)에 근거해서 40명 이상의 헤라클레스가 있었다고 보고한다.<sup>63)</sup> 제우스는 정의를 상징하는 시적 인격체이고, 최초의 아버지들은 제우스의 명령을 받드는 경건하고 신중하고 절제 있는 영웅들이었다. 그리고 이 영웅들이 최초의 왕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전조의 근원인 번개로 [제우스]는 최초의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산에 있는 동굴 속의 땅 밑에 살라고 명령했다. 그리함으로써 [제우스]는 그들이 숨어 살던 땅의 주인이 될 행운도 함께 주었던 것인데, 그들이 국가 최초의 주군이 되었던 것이다.”<sup>64)</sup>

비코는 ‘모든 것이 [제우스]로 가득하다’(Iovis omnia pleant)라는 말을 이성주의의 형이상학에서 이해하는 방식, 즉 신의 편재성(遍在性)으로 이해하지 않는다.<sup>65)</sup> 그는 가족 국가를 지배하던 가부장들이 스스로 자신을 제우스와 같은 존재로 간주했으며,<sup>66)</sup> 호메로스가 그런 제우스는 귀족 왕처럼 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67)</sup> 또한 신화 시인들은 헤라라는 시적 인격체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는 혼인제도에 대한 상징이다. 비코는 그리스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 술론을 “평민의 평등을 요구하는 시적 인격체”로 이해한다.<sup>68)</sup>

시적 인격체들을 통하여 고대의 민중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적 인격체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 속에서

63) 비코, 『새로운 학문』, 32[§14].

64) 비코, 『새로운 학문』, 370[§491].

65) 비코, 『새로운 학문』, 393[§515].

66) 비코, 『새로운 학문』, 520[§629].

67) 비코, 『새로운 학문』, 471[§585].

68) 비코, 『새로운 학문』, 299[§414].

탄생했음에도 여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류가 신적인 섭리 속에서 정신적인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비코는 혼인, 매장, 가족, 국가 등과 같은 사회 제도들이 인간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이전의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탄생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신화는 그 종교적 경험이 언어로 표현된 결과이고 이 신화는 사회를 유지하고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VI. 비코와 현대의 종교 연구

비코는 기본적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전문적인 종교 연구자는 아니다. 그는 법학자로 자신을 이해했고, 이기적인 욕구와 본능에 따라 살던 야수적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법, 제도를 이루면서 문명사회를 건설하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코는 종교가 사회, 제도, 문명의 기초라는 강한 확신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에게 종교 연구의 역사에서 한 장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 연구사 그리고 현대 종교 연구에 있어서 비코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종교와 신화 연구에서 인간 합리성과 불합리성, 이성과 신앙의 이분법을 구도로 하여 접근하는 방식에 도전하였다는 점에 있다. 한편으로, 그는 계몽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이성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상상력, 창의성, 감각적 경험 등의 요소를 종교와 신화 연구에 중심적 위치로 올려 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낭만주의 사조가 종교의 비합리적인 측면에 주목한 점을 미리 간파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른 편으로, 그는 계몽주의의 다른 축을 형성한 극단적 경험주의와도 결별한다. 그는 흠과 같이 종교의 기원을 인간의 구체적이고 감각적 경험에서만 찾는 입장에 배격한다. 비코에 따르면 인간의 종교 경험은 순전히 이성적 요소나 감각 경험적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 프류스(Preus)는 종교 연구사에서 비코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의 새로운 학문은 보편적인 것을

특수한 것에, 영원한 것을 역사적인 것에, 이념적인 것을 경험적인 것에, 섭리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종교에 대한 연구에서 획기적인 의미들을 가지게 되었다.”<sup>69)</sup> 이하에서 비코의 종교와 신화 연구가 현대 종교 연구에서 갖는 시사점 몇 개를 지적해 본다.

첫째, 비코는 종교를 현대적인 용어로 현상학적, 해석학적 입장에서 연구했다. 이는 종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스러움’(the sacred)에 대해 갖는 의미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접근법은 종교를 이해할 때 종교를 믿는 자의 시각에서 연구함을 의미한다. 비코는 신화와 종교를 연구할 때 ‘학문은 그것이 다루는 소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공리 아래서, 철학적 관념에서 출발해 결론을 연역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연구하는 방법론을 취했다. 이 접근법은 특정 신학적 관점에서 종교에 접근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등장한 근대 종교 연구의 방법론을 미리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비코의 사상에는 성스러움에 대한 인간의 경험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비코가 기술하는 대로 최초의 인간들이 천둥소리를 듣고 반응한 방식은 루돌프 오토(Rudolf Otto, 1869-1937)가 제시한 성스러움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유사하다. 최초의 거인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동시에 공포의 대상에 대해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자연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기 시작했으며, 호기심은 인간의 정신을 열어놓음으로써 경이를 낳는다.”<sup>70)</sup>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신비’(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s)를 최초의 인간이 경험했다고 비코는 보고 있다. 성스러움에 대한 공식적인 이론화 이전에 비코는 고대 신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비코는 종교적 믿음이 사회 속에서 행하는 기능과 효과에 관심을 가졌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 그의 새로운 학문의 저술 목적이었다. 저술 속에서 비코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

69) J. Samuel Preus, *Explaining Religion: Criticism and Theory from Bodin to Freud*, 59.

70) 비코, 『새로운 학문』, 266[§377].



서 종교와 신화가 핵심적인 토대가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종교 사회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종교 현상과 법, 정치, 사회, 풍습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보여줌으로써, 비코는 사회과학 이전에 사회과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코의 사상은 종교 연구에서 비이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사이의 관계 문제, 사회 형성과 발전과 유지에서 종교의 역할 그리고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본질 등과 관련하여 이후 종교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 오늘날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에 기반한 계몽주의 사조는 소위 포스트모던 사상의 이름으로 재고되어 오고 있다. 이미 오래전 계몽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비코는 이성주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그것이 간과한 인간의 상상력, 기억, 감정과 같은 요소들이 인간성의 더욱 심층적인 차원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 VII. 결론

본 논문의 과제는 비코의 종교와 신화 이해에서 반계몽주의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근대 계몽주의의 주요 형성자인 데카르트와 비코를 철학적 측면에서 비교하고,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철학에 입각하여 두 학자의 신화 이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직접적 소재로 삼고 있는 『새로운 학문』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신화는 허구적인 미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추상적 사고에 약한 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해석하고 표현해 낸 역사임을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아닌 이성적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계몽주의자들의 사회관에 맞서서 비코는 종교가 사회를 형성하는 기초라고 주장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일관되게 종교와 신화가 인간의 역사와 철학, 사회, 여러 인간적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비코의 이러한 입장은 역사와 사회 그

리고 종교를 이성을 통해 이해하고 설명해 내려 했던 계몽주의적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이성, 신화, 종교, 상상력, 기억력, 성스러움

원고접수일: 2022년 05월 14일

심사완료일: 2022년 0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06월 28일

## 참고문헌

- 데카르트, 르네. 「방법서설」. 『정신지도 규칙·방법서설』.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9.
- 문경환. 「지암바티스타 비코의 언어관과 역사관」. 『인문언어』 6/6 (2004): 51-75.
- 비코, 잠바티스타. 『비코 자서전-지성사의 숨은 거인』. 조한욱 옮김. 서울: 교유당, 2020.
- \_\_\_\_\_. 『이탈리아인 태고의 지혜』. 이원두 옮김. 서울: 동문선, 1996.
- \_\_\_\_\_. 『새로운 학문』. 조한욱 옮김. 파주: 아카넷, 2020.
- 유요한. 『종교학의 이해-현대사회의 종교학』. 서울: 세창출판사, 2020.
- 벌린, 이사야. 『비코와 헤르더』. 이종흡·강성호 옮김. 서울: 민음사, 1997.
- 이종흡. 「비코의 *Scienza nuova*에 있어서 역사 지식의 실천적 의미」. 『사총』 30 (1986): 433-468.
- \_\_\_\_\_. 「비코와 성찰적 지혜로서의 역사학」. 『서양사연구』 48 (2013): 83-105.
- 임동현. 「‘유럽의식의 위기’와 비코의 로마사 서술」. 『서양사론』 136 (2018): 35-59.
- 장세룡. 「아이제이어 벌린과 반-계몽주의」. 『역사학연구』 23 (2004): 185-219.
- 조한욱. 「비코의 세계」. 『과학사상』 25 (1998.5): 231-249.
- \_\_\_\_\_. 「국내 비코 연구의 동향과 전망」. 『역사와 담론』 46 (2007): 285-300.
- \_\_\_\_\_. 「비코의 기억력에 관한 연구」. 『청람사학』 21 (2013): 295-308.
- \_\_\_\_\_. 「비코를 이해하기 위하여」.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43 (2017): 207-214.
- 카시러, 에른스트. 『상징형식의 철학 2권-신화적 사유』. 서울: 아카넷, 2014.
- Armstrong, Christopher Drew. “Myth and the New Science: Vico, Tiepolo, and the Language of the ‘Optimates’.” *The Art of Bulletin* 87(4) (2005): 643-663.
- Berlin, Isaiah. *Three Critics of the Enlightenment: Vico, Hamann, He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 \_\_\_\_\_. “The Counter-Enlightenment.” In *The Proper Study of Mankind: An Anthology of Essays*, edited by Henry Hardy and Roger Hausheer, 243-268. London: Pimlico, 1998.

- Caponigri, A. Robert. *Time and Idea: The Theory of History in Giambattista Vico*.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8.
- Cassirer, Ernst. *La philosophie des lumières*. traduit par Pierre Quillet. Paris: Fayard, 1932.
- Chabot, Jacques. *Giambattista Vico: la raison du mythe*. Aux-en-Provence: Sarl Édusud 2005.
- Corsano, Antonio, "Vico and Hume face au problème religieux." *Archives de Philosophie* 40(2) (1977): 241-250.
- Cristofolini, Paolo. *Vico et l'hist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5.
- Fontenelle, Bernard. *De l'Origine des Fables*. In *Oeuvres de Fontenelle*, T. 4/*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sur sa vie et ses ouvrages*. 1825., 297. BnF. Gallica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454793h/f293>[최종검색, 2022/6/4], 294-310.
- Gadamer, Hans-Georg. *Truth and Method*. trans. Joel Weinsheimer and Donald G. Marshall. London: Bloomsbury, 2013.
- Hume, David. *The Natural History of Religion*. In *The Philosophical Works of David Hume*, vol IV. Edinburgh, 1826, 433-513.
- \_\_\_\_\_. *Dialogue concerning Natural Religion and Other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Mali, Joseph. *The Rehabilitation of Myth-Vico's New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Marshall, David L. "The Current State of Vico Scholarship."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2 (2011): 141-160.
- Millbank, John. *The Religious Dimension of the Thought of Giambattista Vico*, I, II. Lewston, NY: Edwin Mellen, 1991-92.
- Miller, Cecilia. *Giambattista Vico: Imagination and Historical Knowledg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 Morrison, James C. "Vico and Spinoza." *Journal of History of Ideas* 41(1) (1980): 49-68.
- Preus, J. Samuel. *Explaining Religion: Criticism and Theory from Bodin to Freud*.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6.

\_\_\_\_\_. “Vico and the Imagination of Relig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 50 (1989): 71-93.

Schaeffer, John D. *Sensus Communis: Vico, Rhetoric, and the Limits of Relativ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0.

Verene, Donald Phillip. *Vico's Science of Imagination*.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_\_\_\_\_. *Vico's New Science- A Philosophical Commenta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5.

Vernant, Jean-Pierre. *Myth and Society in Ancient Greece*. New York: Zone Books, 1990.

Abstract

## **Giambattista Vico's Anti-Enlightenment Understanding of Religion and Myth in *The New Science (Scienza Nuova)***

Lim, Hyeongkwon (Seoul National Univ.)

Giambattista Vico is regarded as an anti-Enlightenment thinker who sought to show the central role of religion and myth in the construction of human society and civilization. He challenged René Descartes, his central intellectual target, who constructed a model of science based on mathematical knowledge. According to the Cartesian model of science, myth is considered to be a mere fiction of primitive humankind who are less intelligent and more ignorant than modern man. Against Descartes's model of science, he endeavored to establish the new model of science based on human memory, imagination (*fantasia*), which is, for him, the basis of myth and religion. He asserts that even mathematical knowledge is not objective truth, but a product of human-making (*poesis*). Therefore, the distinction between myth and reason is, for him, not valid, since myth embraces rational thinking. He holds that myth is an expression and interpretation of human experience of the sacred, which is the basis of religion. This means that myth is not a fictional story as Enlightenment thinkers like David Hume believed, but a way of understanding (*Weltanschauung*) the world of primitive men. The significance of Vico's theory of religion and myth consists in his consideration of religion in its own terms, not from an outside point of view. His perspective prefigures the modern theory of religion such as phenomenology, hermeneutics, and sociology of religion.

Key Words: reason, myth, religion, imagination, memory, the sacred